

순서 유형 완전 정복

문장 순서를 맞추는 유형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어렵다기보다, 그냥 순서 문제를 보면 싫은 마음이 듭니다. 문제 덩치가 크고, 읽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답이 딱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꽤 자주 틀리는 유형이 순서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두 문제씩도 나오니, 말 그대로 그저 뭔가 마음에 부담을 주는 유형입니다.

제가 재수 때 9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순서 유형이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당시 2등급 끝자락이 겨우 나왔던 저는 그 두 문제를 모두 틀렸습니다. 그 9월 모의고사를 못본 것은 저에게 엄청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접근법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수능이 두 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으로 완벽한 바이블을 제작했습니다. 바이블을 제작하고 고3때까지 3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저는 재수 때 10월 이후부터 모든 실전과 실전연습에서 1등급 혹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깨달음이(‘내가 진짜 엉터리로 풀고 있었구나’ 하는) 있었던 유형 중 하나가 순서입니다.

순서에도 명확한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어떤 커다란 순서 문제도 마음 놓고 풀 수 있게 해주는 훈련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문장 순서 접근법

1) 순서를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장 순서가 쉽게 풀리는 경우부터 생각해 봅시다.

연결사, 정관사, 지시대명사 등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존재하며, 글이 잘 읽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9월 모의고사에서 순서를 두 개 다 틀렸던 이유는 이 ‘연결고리’를 믿고 만만히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저 그럴 듯한 모양을 골라서** 그렇습니다. ‘However 가 나왔으니 이것은 마지막은 아니겠지 중간에 있어야 하잖아, Therefore 가 나왔으니, 마지막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풀었기 때문이지요.

실제 제가 틀렸던 문제를 한번 봅시다.

2013학년도 9월 모의고사

A former resident of Canton, Ohio, was trying to describe her image of the city to her classmates. She found they had no image of this mid-sized city. She described Canton as a city with major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a downtown revitalization program.

(A) That fact suddenly crystallized the concept of Canton. If Canton is destroyed, the nation might fall. That’s an image that gave meaning and fullness to what it meant to live in Canton.

(B) Her explanation moved the city from the position of no image to that of a negative image. The class concluded that Canton is a typical, boring, industrialized city.

(C) Then she suddenly recalled an experience: “I remember hearing from a teacher that during World War II Canton was a major U.S. target of the Germans.” Imagine, right after the cities of Chicago, New York, and Los Angeles, appears the name of Canton.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나는 어서 순서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순서가 두 문제가 나오자 더 마음은 조급해지고, ‘어서 답을 찾아, 어서 답을 찾아,’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며 답을 찾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유난히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글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답은 뭐지, 뭐라는 거지 답은 뭐지, 시간 없는데”

이러다가 저는 C-A-B를 골랐습니다.

(A)는 처음이 아닐 것 같고, (C)에서 그녀가 설명을 하고 (A)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B)에서 ‘The class concluded that’ 결론을 내린다 하니, 꽤 그럴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맞춘 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순서 유형을 풀 때의 상황입니다.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순서를 틀렸다면 100%, 대충 읽어서, 진짜 내용은 읽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양만 맞추려고 들어서 틀린 것입니다.

최신 고난도 순서문제의 트렌드는 연결사, 정관사, 지시대명사 그리고 그럴 듯한 모양 맞추기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줍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